

34

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담낭암

성별	남	나이	56세	직종	환경미화원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황○○(남, 56)는 1991년 3월부터 Y군청에 근무하던 중 2003년 3월 Y대학병원에서 간으로 전이된 담낭암(선암)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황○○는 1991년 3월 5일부터 Y군 P면의 환경미화원으로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중 오전에는 4.5톤 일반폐기물 수거차량에 탑승하여 일반폐기물을 수거하고, 오후에는 일반폐기물을 분리하여 1개월마다 1명씩 교대로 보호구 착용 없이 오후에 3~4시간 동안 계속 긴 막대기로 소각물을 저어주면서, 소각 진행상황에 따라 소각물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소각하였다. P면 자체 소각로가 폐쇄된 2002년 11월 이후에는 P면 매립장 장소에서 2명의 환경미화원은 분리작업을 하고, 2명의 환경미화원은 매립 및 소각 대상 폐기물을 Y면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매립 및 소각로에서 소각작업을 하였다. 2001년 11월 중 근로자 황○○는 총 22일간 매일 3~5시간(월간 총 76시간) 소각작업을 하면서 하루 0.3~1.0톤의(월간 총 15.3톤)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였다.

3 의학적 소견

황○○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, 담배도 하루 수 개피 정도만 피웠다 한다.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1999년 9월 2일 이후 2003년 2월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P면 보건지소를 방문하였다. 2003년 2월 27일 오후 작업 중 시작된 발열 및 오한으로 Y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복부 컴퓨터단층사진상 간의 종양과 간내 담도의 확장 소견이, 세침간조직검사상 선암 소견이 나타났다. 확장 간우엽절제술 및 담낭절제술 당시 1.5cm 크기의 담석(pigmented gallstone)이 담낭에서 발견되고 담낭 목(neck) 및 담낭관(cystic duct)의 벽이 두꺼워져 있으면서, 조직검사에서 3.5×2.5cm 크기 선암이 담낭 목(neck) 및 담낭관에서 확인되고 담낭 자체는 만성 담낭염 상태이었으며 간에서는 5.5×3.5cm 크기의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었다. 한편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은 음성이면서, 대변검사에서 간흡충(간디스토마)의 충란이 발견되었다(400/gm).

4 결 론

황○○의 담낭암은

- ① 간으로 전이된 담낭암(선암)으로 확진되었고,
- ② 담낭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낭염 소견이 있으면서 간디스토마보균 상태이었던 반면,
- ③ 과거 12년 간 환경미화원으로서 생활폐기물을 수거, 분리, 소각하는 작업중 노출되었을 유기분진 및 다이옥신에 의해 담낭암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,

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.